

허문희 Mun-Hee HUR (b.1976-)

2000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16회) |

- 2022 <Little Forest> (맥화랑, 부산)
- 2020 <숲의 시간> (벨문도갤러리, 제주)
- 2018 <숲> (맥화랑, 부산)
- 2017 <Island> (Gallery2, 서울)
- 2016 <그 섬으로부터> (문예회관, 제주)
- 2013 <고요한 집> 초계청년미술상 수상기념 초대전 (초계미술관, 제주)
- 2013 <비밀의 정원> (설문대 기획전시실, 제주)
- 2011 <어느섬의 표류기> (맥화랑, 부산)
- 2010 <섬-어떤 날> (샘터갤러리, 서울)
- 2009 <꿈꾸는 섬> 제주문화예술진흥원 기획 (문예회관, 제주)
- 2009 <꿈꾸는 섬> (맥화랑, 부산)
- 2009 <BELT 2009 선정작가전>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8 <허문희 개인전> (맥화랑, 부산)
- 2007 <빛2007>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6 <사소한 날들의 기록> 판화전 (문예회관, 제주)
- 2005 <허문희 판화전> (문예회관, 제주)

| 주요 단체전 및 아트페어 |

- 2024-2022 BAMA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BEXCO, 부산)
 - 2024-2022 화랑미술제 (COEX, 서울)
 - 2023 <10-2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 2023 INTERMISSION (맥화랑, 부산)
 - 2022 ARTJEJU (제주 롯데호텔, 제주)
 - 2022 아트페스타인제주 (산지천갤러리, 제주)
 - 2021 KIAF 서울 (COEX, 서울)
 - 2021 DIAF (EXCO, 대구)
 - 2021 ARTJEJU (메종글래드, 제주)
 - 2021 아트페스타인제주 (산지천갤러리, 제주)
 - 2020 <10-2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 2020 아트페스타인제주 (산지천갤러리, 제주)
 - 2019 <생태미술기획전> (기당미술관, 제주)
 - 2019 <99+1 제주작가조명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9 <구본신창>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18 <소, 사랑하는 모든 것> (이중섭미술관, 제주)
- 그 외 다수.

|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서귀포시기당미술관,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 제주초계미술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 KBS제주방송총국신사육, 제주한라대학,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신화월드 리조트관, 외 다수.

| 작가노트 |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섬의 숲은 아직 완전한 존재를 갖추지 못한 것들을 품고, 치유한다. 숲의 그림자 안에 자라는 나무의 새순과 여러게 줄기를 세워 뿌리를 내리는 식물들. 그 빛의 조각을 그늘 삼아 숨어 잠자는 고양이. 아직 여리고 온전한 존재로서 무장하지 못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은 그것과 연결된 느낌의 기쁨과 사랑이다.

섬의 숲은 세상과 다르게 날마다 푸르렀고 눈부셨다.

새로 태어난 생명의 형태를 가진 것들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며, 태어남으로써 이미 그 존재 자체로 다했다고 할 만큼 빛이 난다. 그 생명 형태 속에 있는 본질을 감지하는 일들은 즐거움이다.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유보된 시간 속에서 나는 섬이 되었다.

초록의 숲의 에너지와 고양이의 나른한 낮잠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존재하는 작은 아름다움을 보며, 위로 얻었다. 그 찰나에 느끼는 순간의 평화로움과 온기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현실에서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는 그림 안에 사라지지 않는 공간에 숨겨 놓았다. 그것은 살아서 빛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온신치이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위로이다.

| 갈등과 탐욕이 제거된 허문희 작가의 풍경, Little Forest |

2007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상 수상작가, 허문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갈등과 위기가 제거된 동화적 풍경화 갈등없는 영화, 악역없는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보름 전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주 애월읍 소재의 곳자알¹을 서울월드컵경기장 크기와 맞먹는 크기만큼 훼손한 70대 A씨가 법정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곳자알의 나무를 무단 벌목하고 암석지대를 깎아 황무지로 만든 A씨는 곳자알을 임야로 바꾸면 땅값이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² 수천년의 시간과 생명을 품은 생태계를 삽시간에 훼손시키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울창하게 우거진 숲, 숲의 그림자 안에 자라는 나무의 새순과 여러게 줄기를 세워 뿌리 내리는 식물들, 그 빛의 조각을 그늘 삼아 숨어 잠자는 고양이, 나무 위에 앉아 평화롭게 지저귀는 새들. 허문희 작가의 그림 속 풍경은 인간의 탐욕이나 이기심은 묻어나지 않는다. 그저 평화롭고 아름다워 때로는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까지 한다. 허문희 작가의 작품을 가만히 보고있으면 경쟁적으로 앞을 다투고 고민과 갈등으로 지쳐있는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고요와 평화만이 존재하는 초록의 울창한 풍경 속으로 시공간이 옮겨지는 듯한 위로의 순간을 경험한다.

제주 토박이인 허문희 작가는 그녀가 나고 자란 '섬의 숲'에 주목한다. 작가는 누적된 시공간이 쌓여 있는 숲을 통해 현실과 현실너머의 것들을 차단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마주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숲의 시간 속에 숨겨진 생명력이다. 그림에서 재현되는 숲은 섬의 숲에서 보았던 식물과 풍경을 단초로 재구성된 시간 밖의 세계이다. 인간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있거나, 버려지고 죽어가는 동물들, 현실에서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좀 더 안전하고 평온한 그림 속 현실너머의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공간에 숨겨 놓는다. 그 안에서 본래의 숲의 시간을 회복하고, 숲의 생명력을 통해 원시적 감수성을 되찾는다. 어느 개체건 어느 종이건 생명의 다른 이름은 죽음이고, 진화의 끝과 시작은 멸종이라고 했다. 인간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아니 인간보다 더 이전의 주인이었던 동물과 식물, 나무와 숲, 그 관계 안에 자리 잡은 이들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이어진다. '아무도 숲을 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모든 생명이 나고 자라나는 삶. 허문희 작가는 섬의 숲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생명력의 가치를 붓으로 담아낸다.³

맥화랑에서 진행되는 허문희 작가의 열여섯번째 개인전 <리틀 포레스트>는 2018년 개봉한 임순례 감독의 리메이크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제목을 빌렸다. 겨울의 풍경에서 시작된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순환되는 사계절의 풍경과 자연에서 얻은 먹거리, 그 시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숲을 찾아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큰 갈등이나 위기, 극적인 반전같은 영화적 요소는 제거된 채 흘러가는 시간과 계절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자연 풍경 그리고 정갈한 음식만이 영화를 가득 채운다.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곱씹으며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만끽한다. 갈등없는 서사 속에서 천천히 시간을 음미하다보면 일상이 소중해지고 잊고 있던 보통의 삶이 눈에 들어온다. 허문희 작가의 작품과 닮아있는 이 영화의 시작부엔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잠시 잊고 있던 자연의 울림을, 그 속에 숨겨진 생명의 온기를 선사하고자 한다. 위기와 갈등,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제거된 허문희 작가의 온전한 숲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과 위로의 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

- 맥화랑 큐레이터 김정원

1 곳자알: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진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덩굴, 다양한 동, 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
2 SBS뉴스 | "너만 없으면 땅값 올라".. 제주 곳자알 허허벌판 만든 70대 (2022. 11. 17 일자 기사, 2022. 12. 1 검색)
3 허문희 작가 2020년 작가노트 참고